

지방도시 여성의 혼인 유무별 인공유산 경험 실태조사

대한간호, Vol. 15, No. 4, pp. 70~80, 1976.

김 영 자

청주시에 살고 있는 기혼녀로서 인공유산을 경험한 가정주부 432명을 가정방문에 의하여 무작위 추출하고 미혼녀는 청주시내 여러 산부인과에서 수술받은 11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하여 면담조사하여 인공유산의 실태 파악과 수술후 건강관리에 대한 산과적 지식 정도를 알아냄으로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인공유산의 위험을 인식시켜 미혼녀와 기혼녀에게 인공유산을 예방하게 할 목적으로 조사연구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인공유산 경험자 550명의 연령별 분포는 미혼녀는 18-27세군이 94.0%, 기혼녀는 23-37세군이 60.1%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출산력이 왕성한 연령층이었다. 최소연령은 13세, 최고연령은 52세였다. 학력은 중졸이상 대졸이 63.0%이고 직업은 기혼녀는 전체 대상자가 가정주부이며 미혼녀에서는 집객요원이 2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생으로 17.8%를 보였다.

② 가족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전 대상자의 82.0%였으며 기혼녀에게는 79.2%, 미혼녀는 92.4%로 미혼여성에서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였다.

이상적인 자녀터울은 2-3년이 전용답자의 82.4%를 보였고 기혼녀는 79.7%, 미혼녀는 92.4%를 보였다. 전용답자의 이상적인 평균 자녀터울은 2.7년으로 나타났다.

③ 인공유산을 하게된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혼전이기 때문으로 전용답자의 21.5%를 보였고 기혼녀에서는 피임을 실패해서로 24.1%가 수위이고 미혼녀에서는 혼전이기 때문으로 71.2%가 수위를 보였다. 임부의 건강때문에는 겨우 11.6%로 기혼녀에서만 64예를 보였고 경제적 이유는 미미하였다.

④ 유산의 수술시기로는 임신월수 3개월(12주)이내가 78.7%로 전용답자의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최고 임신월수로 6개월 이후에 실시한 응답자도 0.9%를 보였다. 전용답자의 최종유산시 평균 임신월수는 2.5개월이었다.

유산횟수는 1-2회가 전용답자의 84.8%를 보였고 기혼녀에서는 81.5%, 미혼녀에서는 96.7%를 보였으며 전용답자의 인공유산 횟수는 평균 1.6회였다.

⑤ 유산후 건강관리는 산후 건강관리와 같게 한다가 전용답자의 9.1%로 기혼녀에서만 50예를 보였다.

또한 유산후 공중목욕탕 이용시기로는 15일 이후가 전응답자의 44.7%를 보였고 기혼녀에서는 56.5%, 미혼녀에서는 1.7%로 적은 율을 보인 것으로 보아 특히 경험이 적은 미혼녀에 대하여 유산후 몸가짐에 대한 건강교육이 절실함을 알수 있다.

⑥ 유산후 합병증이 있을 때 치료방법은 수술한 병원외사의 치료를 받은 응답자가 전대상자의 60.5%를 보였고 기혼녀에서는 71.8%, 미혼녀에서는 19.1%를 보였다.

⑦ 혼전 여성의 성 경험을 보는 관점은 전응답자의 71.5%가 옳지않다고 보고 있으며 기혼녀에서는 74.3%, 미혼녀는 61.0%를 보였다. 경험있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도 전응답자의 1.2%를 보였으며 기혼녀에서만 7예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① 인공유산이 광범위하게 합법화되어 건강을 해치게 되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시술되지 않고 수술후의 건강관리에 대한 세밀한 계몽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수술후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예방도 철저히 시행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인공유산을 행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수술경험자중 기혼녀에게는 가족 계획 및 자기에게 알맞는 피임방법에 대한 계몽교육 및 시술을 권장하여야겠고 미혼녀에게는 범죄유산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키고 미혼여성이 가져야 할 몸가짐과 올바른 이성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혼전상담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③ 산부인과 외래진찰소에서나 산부인과 개인병원에서는 “여성건강 상담실”을 설치하여 특별히 인공유산을 시행하는 여성들에게 수술후의 몸가짐이나 건강관리 및 범죄유산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모자보건 사업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일부 보건소 결핵환자의 지식태도 실천에 관한 조사

대한간호, Vol. 15, No. 1, pp. 43~57, 1976.

박 신 애

보건소에 등록하여 결핵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결핵관리에 필요한 예방과 치료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3개 보건소의 결핵관리실에 등록된 환자중 274명이 응답하였다. 이들 응답자에 대하여 1975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에 훈련된 40명의 면담자가 면담 기록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